무등 plus 제 15 호

생동하는 교회 광주무등교회

교회창립 1985. 11. 23. GWANG JU MUDEUNG PRESBYTERIAN CHURCH 2024년 6월 30일(주일)

● **발행·인쇄인** : 오용선 ● **편집인** : 지형원 ●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무등교회 / 광주광역시 서구 서광주로 19 ● **대표전화** 062-373-0034 FAX 376-6084 ● **인쇄처** : 푸른인쇄사

광주무등교회 젊어지고 있다.

청년부·3040 세대 교회 각종 행사 주도적 참여

교회 사상 첫 캄보디아 비전트립 등 큰 성과



저출산과 고령화가 한국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 되고 있고 한국교회들도 성도들의 고령화가 부흥의 큰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무등교회도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고령화를 낮춰가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성도들의 고령화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청장년 세대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일이지만 한국교회의 성도 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교회 전도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광주무등교회는 최근 청년부와 3040세대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어 큰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광주무등교회 당회가 청년부와 3040세대를 위한 예산 증액, 3040구역 편성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는데 원인이 있지만 성도들의 자녀나 우리교회 교회학교 출신들이 성장하여 돌아오면서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예산의 경우 청년부 2012년 7백만원에서 20년 1천만원으로 늘렸고 지난해부터는 1천5백만원으로 증액했다. 3040세대는 2018년 3040팀 구성 당시 300만원에서 20년 5백만원, 23년 1천만원, 올해는 1천5백만원으로 증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청년부와 3040세대는 친목과 믿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교회 곳곳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다. 무등교회 사상 처음으로 청년부가 지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 동안 캄보디아 시엠립과 돈라이지역에서 비전트립을 가진 바 있으며 최근에는 식당 봉사자로 자원하는 등 교회활동 전반에 모습을 드러내며 이 밖에도 이단 대척을 위한 모임, 한 달 동안 30명이 참여한 성경필사 행사,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19일까지 50일간을 '기쁨의 50일' 로 정하여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통독하는 행사도 가졌다. 또 부활절, 추수감사예배, 성탄 감사예배 때 청년부 찬양순서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도 오는 8월 2박 3일 동안 제주 성안교회에서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다.

3040세대는 오용선 목사 부임 이후 중점과제로 추진되고 있는데 2018년 팀으로 출발해 지난해 교구로 편성된 바 있다. 이들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임원 팀장 모임을 통해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지난해 3월 11일에는 3040에 속한 전체 가정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함께 걸어가요' 주제로 가진 행사에 150명이 참여,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6월 6일에는 화순 하니움체육관에서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음 페스티발"을 가져 3040교구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 밖에도 11월 찬양집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3월 9일에는 예수전도단 어린이 전문스텝을 초청한 가운데 팀별 친교 모임을 가졌다. 또 4월에는 광신대 찬양사역 연구소를 초청, "Hi! Jesus" 주제로 제6회 찬양집회를 가졌다. 3040세대의 활동이 좋은 소문이 나면서 극동방송 '사랑의 뜰안' 프로그램에 초대되기도 했다. 3040팀은 오는 29일 전라북도 임실에서 어린이 119 안전 체험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청년부와 3040세대를 맡아 목회하고 있는 최충희 목사는 "교회가 젊어지고 있는 느낌을 확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은 추세가 2, 3년만 지속된다면 한국교회에 새로운 젊은 세대 부흥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편집부〉

저출산과 고령화가 한국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 되고 있고 한국교회들도 성도들의 고령화가 부흥의 큰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무등교회도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고령화를 낮춰가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성도들의 고령화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청장년 세대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일이지만 한국교회의 성도 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교회 전도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광주무등교회는 최근 청년부와 3040세대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어 큰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광주무등교회 당회가 청년부와 3040세대를 위한 예산 증액, 3040구역 편성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는데 원인이 있지만 성도들의 자녀나 우리교회 교회학교 출신들이 성장하여 돌아오면서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예산의 경우 청년부 2012년 7백만원에서 20년 1천만원으로 늘렸고 지난해부터는 1천5백만원으로 증액했다. 3040세대는 2018년 3040팀 구성 당시 300만원에서 20년 5백만원, 23년 1천만원, 올해는 1천5백만원으로 증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청년부와 3040세대는 친목과 믿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교회 곳곳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다. 무등교회 사상 처음으로 청년부가 지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 동안 캄보디아 시엠립과 돈라이지역에서 비전트립을 가진 바 있으며 최근에는 식당 봉사자로 자원하는 등 교회활동 전반에 모습을 드러내며 이 밖에도 이단 대척을 위한 모임, 한 달 동안 30명이 참여한 성경필사 행사,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19일까지 50일간을 '기쁨의 50일' 로 정하여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통독하는 행사도 가졌다. 또 부활절, 추수감사예배, 성탄 감사예배 때 청년부 찬양순서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도 오는 8월 2박 3일 동안 제주 성안교회에서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다.

3040세대는 오용선 목사 부임 이후 중점과제로 추진되고 있는데 2018년 팀으로 출발해 지난해 교구로 편성된 바 있다. 이들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임원 팀장 모임을 통해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지난해 3월 11일에는 3040에 속한 전체 가정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함께 걸어가요' 주제로 가진 행사에 150명이 참여,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6월 6일에는 화순 하니움체육관에서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음 페스티발"을 가져 3040교구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 밖에도 11월 찬양집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3월 9일에는 예수전도단 어린이 전문스텝을 초청한 가운데 팀별 친교 모임을 가졌다. 또 4월에는 광신대 찬양사역 연구소를 초청, "Hi! Jesus" 주제로 제6회 찬양집회를 가졌다. 3040세대의 활동이 좋은 소문이 나면서 극동방송 '사랑의 뜰안' 프로그램에 초대되기도 했다. 3040팀은 오는 29일 전라북도 임실에서 어린이 119 안전 체험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청년부와 3040세대를 맡아 목회하고 있는 최충희 목사는 "교회가 젊어지고 있는 느낌을 확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은 추세가 2, 3년만 지속된다면 한국교회에 새로운 젊은 세대 부흥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편집부〉

기독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

기독교 교회와 신앙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정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기독교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1. 기독교 교리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지켜야 할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를 잃어버린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독교의 절대 기준을 파괴하는 폭력입니다.

성경을 통해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고, 동성애는 죄라고 하셨습니다. 법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고, 사회적 성규범을 혼란시키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의 성을 인정하라는 젠더주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부인하는 폭력입니다.

2.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어, 강력한 제제조치를 하고 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지목된 사람은 차별행위의 정당성을 직접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신앙의 자유,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위축되고 억압됩니다.

이런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기독교인들의 발언과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인권경찰이 생길 것입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무소불위 권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력화가 숨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견제 장치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법과 기준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4. 서구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후 모든 영역에서 이 법에 따른 법 개정과 규칙을 만들어 문화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기준에 맞추어 규제와 탄압이 시작됩니다.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안은 '참-거짓' 그리고 '선-악'에 대해서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종교 규범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각종 재화 ·용역 제공 거부하는 행위가 차별행위로 처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육에도 영향을 끼쳐 타 종교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기독교학교 입학 및 채용을 제한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동성애나 성별 전환 반대하는 교육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와 표현의 자유, 국가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회 홈페이지 전재〉

도쿄 오야마교회· 말레이시아 므라까이 교회 지원키로

광주무등교회 2024년 해외선교지 선정, 각 2천만원씩



도쿄 오야마기독교회 성전부지



말레이시아 므라까이교회

해마다 1곳씩을 선정해 해외 선교지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올해 특별히 2곳을 지원키로 했다.

광주무등교회 당회(당회장 오용선 목사)는 지난 6월 23일 열린 당회에서 일본 도쿄의 오야마 기독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해외선교부가 추천한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므라까이 교회를 지원키로 결의 했다. 오야마 기독교회 지원금은 교회재정에서, 말레이시아 므라까이 교회 지원금은 김철환장로·김기영권사 가정에서 특별목적헌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일본 도쿄의 오야마기독교회(김영희 선교사)는 2015년 3월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를 시작해 그해 7월 현재의 장소인 이타바시 2-38-5로 이전했으며 지난 22년 5월 개척멤버 중 한 사람인 쿠로야나기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써 교회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 현재 40~45명이 예배들 드리고 있으며 지난 4월 부활절때는 근처의 집회장소를 빌려 100여명이 예배를 드리는 등 성장하고 있다.

오야마교회는 지난해 현재의 교회 뒤편 이타바시 미나미공원 앞에 56.7평의 토지를 매입, 건평 33평의 2층 목조건물을 신축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오야마교회와 우리 교회의 첫 만남은 지난 2001년 광주지역 목사·장로·권사들로 구성된 센다이 선교탐방 당시 故 류민현 장로, 박주혜 권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04년부터 20여년 동안 매월 후원금을 보내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교회 중·고등부가 현지에 가서 선교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오야마 기독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오는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우리교회를 방문, 선교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에 있는 므라까이 교회는 주일학교 운영, 미취학 아동 학습지도, 빈민구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클라이지역에 교회를 설립, 선교활동을 해온 고 이상엽 선교사의 부인이 남편의 뒤를 이어 선교활동을 펴고 있다.

현재 20여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0평 규모의 예배당과 5~6평 규모의 화장실 등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총회 해외선교부의 설명이다.

예상건축비는 총 65,000 링깃(한화 약 2천만원) 정도인데 전액을 김철환장로·김기영 권사 가정에서 목적헌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김철환 장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가족의 뜻을 모아 해외선교 건축지원을 하기로 했다."면서 "미약하지만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편집부〉



광주무등교회 '119' 운동 큰 열매

217명 작정자 가운데 131명 새신자 출석

광주무등교회는 올해 새신자 초청잔치의 구호를 '119'로 정하고 택시 타고 교회 오는 날, 현장예배 드리는 날, 이만수 장로 초청 간증집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119' 캐치 플레이즈는 '한사람(1)이 한 영혼(1)을 구원하자(9)'라는 뜻으로 성도들은 매주 구호를 외치며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총 217명의 작정자 가운데 총동원 주일인 6월 23일 131명이 출석, 큰 성과를 보였다. 작정 대상자 가운데는 COVID-19로 인해 잠시 교회를 떠났거나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주변의 친지들을 초청대상자로 작정하고 기도를 진행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무등교회

www.mdch.or.kr



원로목사 진 명 옥



담임목사 오 용 선

구분	시간	장소
주일 1부	오전 07:30	본 당
주일 2부	오전 09:30	본 당
주일 3부	오전11:30	본 당
주일오후	오후 2:00	본 당
수요예배	오후 7:30	본 당
금요심야	오후 8:30	본 당
새벽기도	오전 5:30	본 당

구분	시간	장소
영 아 부	오전 09:30	지하1층2관
유아유치부	오전 09:30	지하1층2관
유 년 부	오전 09:30	지하1층3관
초 등 부	오전 09:30	지하1층5관
중 등 부	오전 09:30	지하1층9관
고 등 부	오전 09:30	지하2층1관
청 년 부	오전 11:30	지하2층1관

62010 광주광역시 서구 서광주로 19(매월동) TEL. 062) 373-0034 FAX. 376-6084

오용선 담임목사 목회서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고린도후서 3:1~3)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SNS가 없던 시절에 '편지'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매체였습니다. 편지는 단순히 안부만을 묻는 글이 아닙니다. 편지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성스럽게 글로 표현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편지는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또한 상처받은 마음이 녹아지기도 하고, 오해가 풀리기도 합니다. 이게 편지의 매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나 개인에게 편지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후 3:3)

성도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울타리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입술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인간관계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저는 한국교회의 기독교 역사 140년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편지 하나를 소개합니다.

젊은 나이에 미신과 인습으로 찌들어 있던 한국에 와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 한 여성의 편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루빅 켄드릭"**입니다. 그녀는 이 땅에서, 8개월이라는 짧은 선교사역의 삶을 살다가 간 여성입니다. 그녀가 이 땅에서 짧은 생을 살다가 갔지만, 그녀의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마지막 선교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 뜰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 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조선의 어린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지 일주일도 안 되는 3~4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조선 사람들의 소문 때문에 부둣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딸, 루빅 켄드릭...」

그녀는 조선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았습니다. 켄드릭의 편지와 죽음에 감동을 받은 20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았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비에 새기며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다소 부담이 되고, 거룩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뷰 | 김시용 전도사(前, 담양주생명교회 전도사)

여섯 손가락은 하나님의 축복 …
피아노 배워 개척교회 돕고 싶어



매 주일 아침 교회입구에서 하얀장갑을 끼고 반갑게 맞이하고 또 점심때는 무거운 국물통과 뜨거운 밥통을 나르시는 광주무등교회 봉사의 '아이콘' 김시용 전도사.

중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가정과 일터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신앙을 지켜왔다. 형제들의 연이은 투병과 죽음으로 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창대교회에서 사찰 집사로 지내며 봉사와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을 더욱 다졌다. 이후 3년간의 군소신학을 마치고 전도사로 여러 개척교회를 섬겼다. 2년전 광주무등교회에 등록한 뒤 교통 봉사와 식당 봉사, 성가대 찬양을 통해 성도들에게 헌신하고 있는 김시용 전도사를 만나본다.

Q: 무등교회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으며 오시게 된 특별한 이유는?

A: 무등교회에는 2022년 여름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이옥자 권사님의 초대로 바자회에 참석하면서 따뜻한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이후 12월 24일 연합 예배부터 참석하기 시작하여, 1월 9일에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Q: 교회에서 주차 봉사와 식당 설거지 봉사를 하는 등 여러 봉사를 하시게 된 계기와 그 열심의 원천에 대해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A: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한 후, 셋째 주부터 차량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봉사는 봉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를 많이 섬기면서 사람들이 봉사로 인해 상처받고 떠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봉사를 향한 제 열심의 원천에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봉사에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이 있지요. 내가 조금 희생하고 더 섬김으로 모든 사람들이 편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제 힘의 원천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봉사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감동하여 눈물이 나는 것처럼,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즐겁고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Q: 최근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전도사님의 육 손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힘든 점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제 몸에 아직도 상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상처인데요, 제가 글을 쓰는 걸 보면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를 흉본다고 생각해서 싸워 생긴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자격지심이 있었는지, 제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던 제 성격이 조금 바뀌었지요. 마음을 이렇게 먹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내가 비록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달려 있지만은 나에게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다. 두 번째, 남들과 다르게 나는 하나가 더 달려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이다.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위안이 되었고, 그것이 신체적인 콤플렉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죠. 요즘은 신앙생활 하면서, 도리어 제가 먼저 이 손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합니다. 제 손이 한쪽만 6개면 표가 확 날 텐데, 저는 양쪽이 모두 6개라서요. 대부분은 제 손가락이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시니까요.

Q: 마지막으로, 전도사님께서 이 인터뷰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A: 저는 올해 7월에 강도사 고시를 볼 예정이며, 앞으로 목사 고시도 볼 계획입니다. 목회에 뜻이 있기보다는 개척교회에 가서 찬양 인도나 여러 봉사로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권사님을 통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향후 이를 통해 개척교회를 돕고 그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앞으로도 무등교회에서 변하지 않고, 항상 초심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상 받기를 기대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박민지 청년〉

홈런왕 '헐크' 이만수 장로 초청 간증
6월 23일 2부, 3부 예배시간에



한국 프로야구 제1호 홈런타자이자 홈런왕으로 활약했던 이만수 장로(현, 헐크파운데이션 이사장 및 라오스야구협회 부회장) 초청간증이 지난 6월 23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시간에 진행되었다.

이만수 장로는 1982년 한국프로야구 원년 삼성라이온즈 멤버로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타이틀'을 지닌 한국 프로야구의 '레전드(전설)'이다. 프로야구 1호 안타·타점·홈런과 더불어 최초 100·200홈런 주인공이며, 최초 트리플크라운(같은 해 타율·타점·홈런 동시 1위)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메이저리그 1호 코치와 최초 월드시리즈 우승경력까지. 이에 이 장로는 '헐크' 이외에도 '최초의 사나이'로 불려지고 있다.

'2024년 새가족 초청주일 행사의 일환으로 '기다림과 감사'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간증에서 이 장로는 삶의 궤적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들려줘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 온 가족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이야기와 야구선배인 장효조 선수를 전도하려다 뺨을 맞기도 했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신앙인이 되었다는 간증을 통해 우리는 전하는 것 뿐이며 거두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웠다. 특히 불교 신자였던 장효조 선수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의 아들을 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도 큰 도전을 주었다. 이만수 장로는 또 인종차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 2005년 미국 아메리칸리그 산하 '시카고 화이트삭스' 팀 코치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최초의 한국인이 되기까지 약 50여분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 속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장로는 야구 선수와 감독으로서의 삶을 마친 뒤 야구 불모지이자 불교국가인 '라오스'로 건너가 200여명의 아이들에게 야구를 통해 하나님을 전했으며 현재는 베트남에서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한편, 이만수 장로는 간증이 끝난 뒤 성도들과 교제시간을 가졌으며 야구공에 직접 사인을 해주는 등 즐거운 '포토타임'을 진행했다. 〈나강열 안수집사〉



박한수 목사 초청 부흥성회
"당신은 진짜인가?"
3일 동안 1,600여명의 성도 참여

우리교회는 지난 5월 20일~22일까지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위임목사를 초청, 부흥성회를 가졌다.

"당신은 진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부흥성회는 성도들의 진짜 믿음에 대한 관심과 영적 갈급함 속에서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로 동시에 송출되었다.

월요일 "당신도 거듭나야 합니다(요 3:1-5)" 550명(조회수 2.3만회), 화요일 "기도의 불을 받으라(행4:23-31)" 520명(조회수 3.5만회), 수요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마24:34-44)" 560명(조회수 4만회)이 참여하였다.

박목사는 기도의 중요성과 동시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위해 기꺼이 주의 길을 따라가는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신앙에 대한 점검과 동시에 참신앙을 위한 다양한 간증과 사례설교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박한수 목사는 장신대 신학과, 신대원을 졸업하였고 총회 이단사이비 대책위 서기, 총회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위원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지훈 안수집사〉



상반기 새가족 양육자 43명 수료



24년 상반기 새가족 양육 수료식이 지난 6월 9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 중에 진행되었다. 5주간의 양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은 전입안수집사 1명, 전입집사 13명, 성도 29명 등 총 43명이다. 이들은 양육부의 안내로 무등교회 소개에서부터 신급에 따라 신앙에 대한 이유와 복음과 구원의 말씀을 양육자를 통하여 5주간 배웠으며 수료자들에게는 담임목사 명의의 수료증, 십자가 목걸이, 꽃다발이 수여됐다.

특히 이날 수료식에서 김해정 성도, 고은서 성도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신앙 생활하게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또한 수료식에서는 새가족 양육자들이 양육 수료함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특순으로 복음성가 '행복'을 양육위원들과 함께 찬양하였다. 수료자는 다음과 같다.

양정희 양정애 양정선 송미숙
한재완 이명희 차소연 김애라
황현희 김해정 김진실 김현화
박영초 류종석 구자열 모성은
장은숙 최희원 권해순 김지혜B
서종철 이준건 김계형 김현우
이윤정 진아현 손보영 손미영
강성민 전영숙 고은서 문상호
신영자 문예찬 문예선 반유진
윤민경 김지혜C 김동찬 신동민
최연중 하채윤 손은영

〈조만현 안수집사〉

제7기 무등바이블 아카데미 성황
창조과학회 광주·전남지부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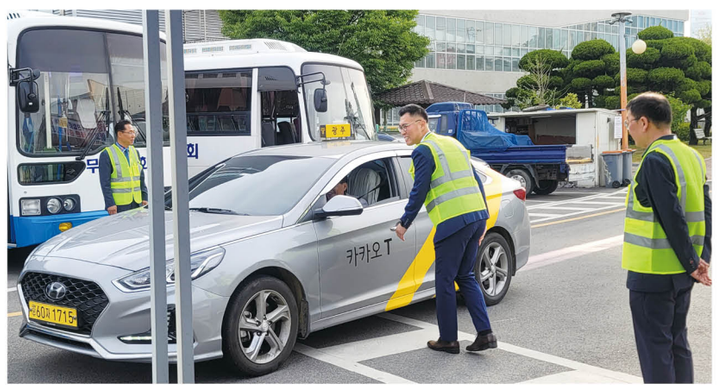
24년도 봄학기 무등바이블 아카데미는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 창조과학회 광주·전남지부'를 초청한 가운데 지난 5월 11일(토)부터 7월 6일(토)까지 총 8주간 15차시 강좌로 진행된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인간, 생물체, 그리고 우주에 내재된 질서와 조화가 우연이 아닌 지적설계의 결과라는 것을 과학적 증거를 통해 주장하고, 이 시대가 만물의 기원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기관이다.

이번 바이블 아카데미는 '기본과정' 코스로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 아닌 허구라는 사실과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정확함을 알기 위한 과정이다. 이번 학기에는 총 120명이 등록했는데 특히 3040세대의 온가족이 수강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다. 평소 창조과학회 강의로 은혜를 받은 강상춘 장로는 강사진을 위한 목적헌금을 하였고, 안병식 은퇴장로는 서울 강사들을 위해 식사도 대접하는 등 훈훈한 모습이 연출되었다. 〈안재우 목사〉

제 7 기 무등 바이블 아카데미 참여자 명단

강상춘 강순옥 강영민 고상미 김형선 김혜림 김혜숙 김혜영 이봉금 이선화 이소윤 이승배
공점숙 김 필 김경희 김광희 김희복 김희자 명윤식 문정숙 이연성 이은자 이정임 이종남
김금림 김금옥 김기수 김명순 민성철 박귀득 박상규 박소희 이주연 이향란 임영자 전다영
김문환 김미리 김병완 김보훈 박은진 박종문 박주혜 박창민 정경원 정기문 정기화 정남철
김상옥 김선숙 김성희 김수진 범영순 서승락 손영남 송재란 정명순 정윤옥 정이순 정현미
김순례 김순아 김순영 김연희 송희정 신문호 신혜선 안난순 조순임 주숙녀 지연주 채석원
김영석 김영숙 김용화 김용환 안병식 안용택 안재현 양문자 최 숙 최 현 최광수 최만임
김유선 김은율 김은혜 김일섭 양정숙 오미경 오정희 우주연 최민영 최선금 최용진 최은숙
김정헌 김정희b 김정희d 김종숙 위경애 위성준 유은숙 윤은찬 최은정 최인영 최재봉 한연심
김청님 김하성 김하진 김향춘 윤재호 윤정희 이남미 이민섭 현지훈 현지희 홍영주 황동열



'택시 타고 교회 오는 날' 무등교회 이미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 기사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한 '택시타고 교회 오기' 행사가 지역사회에 잔잔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행사는 코로나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택시기사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 드리고, 기사들이 직접 교회 안까지 들어와 봄으로써 교회와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의도로 실시된 것이다.

이 행사에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작은 1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광주무등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군요" "지난해에도 제 택시를 이용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모시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특히 거스름돈은 받지 않고 주신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등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교회는 이 행사를 위해 유리클리너·팔토시·생수·초코파이 등의 선물을 준비해 일일이 전달했으며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의 치밀한 준비로 택시가 주차장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되돌아 나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한 권사님은 "기사님들이 표정이 너무 밝아 선물을 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기뻤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 택시타고 교회 오기를 비롯해 코로나 19로 불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현장예배의 날' 운영, 그리고 홈런왕 이만수 장로의 간증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 진행한 바 있다.

'현장예배의 날' 다시 교회로 나온 성도들의 숫자는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새가족 초청 주일인 지난 6월 23까지 새로 등록한 사람이 131명에 이르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우리 교회는 이날 새신자들에게 고급 우산을 선물로 증정했는데 등록자는 131명이었지만 우산을 가져간 사람은 203명으로 새가족 초청주일은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되었다. 〈편집부〉

건강상식

구강관리를 못하면 전신 질환 발생할 수도



정병초 집사
(광주미르치과병원 원장)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서며, 장수 시대에 오래 사는 것 못지않게 건강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 더불어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강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청소년기 이전에 많이 생기는 충치와 성인이 되어 주로 나타나는 치주질환(잇몸병)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2022년 외래다빈도 상병 통계'에 의하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외래다빈도 상병 1위 질환으로, 감기보다 더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의료계 안팎에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치주질환은 구강 내 세균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감기처럼 치과영역에서는 충치와 더불어 흔한 질환중 하나입니다.

최근 대한구강보건협회가 발표한 구강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치주질환과 전신질환과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72.5%, 잇몸병 예방에 중요한 잇몸선 세정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응답이 62.6%로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응답자의 62.9%가 양치시 잇몸 출혈을 경험했지만, 이들 중 45.1% 약 절반 가까이가 잇몸이 아파도 참거나 신경쓰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풍치는 잇몸(치은)과 잇몸뼈(치조골) 모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 입안의 세균들로 인해 극심한 잇몸 염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때 잇몸뼈 상태가 악화되고 치아의 동요도가 심해져 자연스럽게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균의 독소가 잇몸 속의 혈류로 침투해 혈관, 림프관, 신경관 등을 따라 온몸으로 퍼지는 과정에서 심혈관계질환, 폐질환, 뇌졸증, 치매,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 다양한 전신질환을 발생·악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구강 내의 특정 세균은 혈류를 통해 뇌로 이동할 수 있어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 동맥경화와 심장 질환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잇몸 세균이 분비하는 물질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며.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의 연관성도 있는데, 구강 내 세균이 호흡기로 직접 이동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에게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강 건강상태가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국내외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가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적이며, 꼭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식후나 잠자기 전 꼼꼼한 잇솔질, 필요한 경우 치실·치간칫솔 등 보조기구를 활용, 그리고 일 년에 두 번 정도의 치과 검진을 통해 구강 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건강한 잇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잇몸병의 발생과 악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올바른 구강 위생 관리는 전신 건강 관리를 위해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치아관리 생활습관 변화 등 이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회단신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무등교회-서구청 상생업무협약

지역내 아동 자립 위해 '1,000만원 기탁'

광주무등교회와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5월 14일, '민관협력 커플링 사업'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적 문제로 재능을 키우지 못하는 아이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오용선 광주무등교회 담임목사'는 "서구에서 추진하는 민관협력 커플링 사업에 후원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김이강 서구청장은 "오 목사와 성도들의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 내 아동 청소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은혜 집사〉

제36회 전남노회 어린이대회 성료

기한별 성경고사 부문 은상 수상



제36회 전남노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어린이 대회가 노회 소속 21개교회 269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 18일 우리 교회에서 개최 되었다.

곡성 입면교회 김영팔 목사님의 '성경은 진리이다'라는 설교 말씀과 참가자 대표로 우리 교회 이강헌(초등5), 오지윤(유년3)어린이의 선서문 선창, 그리고 성경고사를 비롯한 9개 종목의 경진대회와 더불어 특별공연 '휘타와 함께하는 키즈 힙합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교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성경고사=기한별(은상) 황우진, 황지원, 박여민(동상) 김하진 박지민 오지윤(장려상) △독창=이강헌(동상) △글짓기=강시율 나건호(동상) 〈김유선 권사〉

2024년 교회학교 여름 사역

7월 20일부터 부서별로 진행

2024년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약 한 달여간 각 부서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여름 사역은 광주무등교회 어린 새싹들인 영유아·유치·유년부에서 미래세대인 초·중·고등부, 핵심세대인 청년부까지를 아우르는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영유아유치부, 유년부와 초등부 성경학교는 7월 20일, 21일 교회에서 진행되며 중·고등부연합수련회는 8월 1일~3일까지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5일~17일까지 제주 한경교회에서 개최된다.

진이슬 교육목사는 "2024년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서별 여름 사역 주제 및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부서	기간	주제	장소
영유아유치부 성경학교	7월 20일~21일(주일)	바이블파티	유치부실
유년부 성경학교	7월 20일~21일(주일)	SOS 라파구조대	유년부실
초등부 성경학교	7월 20일~21일(주일)	SOS 라파구조대	초등부실
중·고등부연합수련회	8월 1일~3일(토)	동행	호남신학대학교
청년부 수련회	8월 15일~17일(토)	갈망	제주한경교회

새신자 간증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김해정 성도

양육 담당 집사님의 입교자 간증 제안을 받고 처음 드는 고민은 '제가 하는 것이 맞는가'였습니다. 아직 신앙고백이라 할 것도, 그런 마음의 울림도, 저의 진정성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에 문득 스치는 것이 무등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실 무등교회와의 인연도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보다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에 인사를 드리자는 것이 제 첫 출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새벽예배를 드리는 무등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저에게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매일 새벽 신앙고백을 하고, 하루의 시작을 여는 허리 굽은 성도님들의 맑은 마음이 대단하게 느껴져, 새벽예배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엄청난 비로 떨어진 낙엽에 배수구가 막혀 인도까지 넘치고 있었습니다. 새벽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의 걸음에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함께 왔던 동료와 함께 예배가 끝날 시간까지 배수구 위의 낙엽을 치웠습니다. 도움받길 원했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기분이 드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더 귀하게 아껴준 장로님께서 무등교회 등록 제안을 하셨지만, 망설였습니다. 선거 때 한때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인사를 다니던 교회는 몇 곳이 있었지만, 사람의 인연이 만들어진 곳도, 인사하러 나간 그 순간에 배수구가 막힌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무등교회와 인연을 만들어 주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시작하자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문턱은 어려웠지만 넘고 나니, 이제 든든한 친정이 하나 더 생긴 느낌입니다.

인사하고 예배 볼 때 조금은 쭈뼛거렸던 마음이, 이제 교회 가는 날이면 사랑하는 친정 식구들을 만나는 것처럼 편하고 즐거워졌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기는 궁금함을 성경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복기하면서, 몇천 년의 역사와 시간을 간직한 성경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변치 않고 나아가야 할 진리의 힘이 있다는 것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근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놓고 있던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기억나고, 혼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그 옛날에 즐겨 했던 찬송일 때, 생각보다 내 삶에 교회가 깊이 들어와 있었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놓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독생자 예수님마저 우리 죄를 대신해 보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만드셨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무등교회 성도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정치인 김해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배우며 살아가야 할 성도 김해정의 모습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다'라고 생각하니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첫 인연을 맺고 맞춤형 새신자 양육교육을 해주시고, 선거때 고생한 동료들까지 챙겨주신 권사님들, 그리고 누구보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이 손잡아 주시는 양육팀 덕에 낯설지 않게 무등교회 식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응원과 기도로 힘을 주시는 목사님의 뜨거운 심정에, 그리고 제 손을 놓지 않아주시고, 다시 교회의 울타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로 살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부에서는 / 모닝글로리 찬양팀

"1부 예배전 찬양팀이 아니라 모닝글로리 찬양팀이라 불러주세요"



매주 토요일 5시. 교회 본당에서는 하나님만을 위한 찬양준비로 본당이 들썩인다. 부장인 김기수 안수집사를 중심으로 부인 전다영 권사, 민성철 장로, 김경일 집사, 최일승 집사, 허순애 권사, 임채동 집사, 노민정 집사, 모춘복 집사, 최정은 반주자 등 10명의 목소리가 토요일 오후 교회의 적막함을 깨뜨리는 순간이다.

교회 내 모든 부서들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위해 노력하지만 모닝글로리 찬양팀의 수고는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겨울철 같은 경우 예배전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캄캄한 새벽에 집을 나서야 한다. 특히 이른 아침에 목소리를 깨우는 일은 '사명'이 아니면 어렵다.

'모닝글로리'의 수사적 개념은 아침의 영광이요, 꽃말은 기쁜 소식이다. 리더 김기수 안수집사는 우리 팀의 특징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역설적이게 화음이나 하모니가 잘 맞지 않지만, 이를 맞춰가면서 실력도 늘어나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팀의 실력과 팀워크가 탁월하고 하모니가 좋다면 연습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적어지지 않을까 라는 것이다.

김기수 집사는 오랜 세월 독학으로 기타를 배웠고, 지금도 기타 반주가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고 맡겨준 소임으로 생각하고 힘을 보태는 심정으로 십 수년간 주일 아침 강대상 앞에 선다고 말한다.

모닝글로리 찬양팀은 '살기 위해' 찬양을 준비하고 주일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한다. 팀원들 가운데 한 분은 아픈 유학생 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3개월여 외국에 체류하면서, 찬양이 본인의 생명임을 느꼈고, 찬양이 너무 고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저절로 삶이 회복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찬양하는 순간 세상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잊고, 그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 우리가 '살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모닝글로리 찬양팀은 2주 전부터 찬양을 준비하고 있다. 충분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연습시간 순간순간마다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공통의 고백이다. 그리고 선택된 곡들이 성경의 절기나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곡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지혜를 성도님들에게 찬양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보람 있는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을 위해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모닝글로리 찬양팀'의 요즘 고민은 찬양곡의 선택이라고 한다. 교회 절기나 주요 이벤트에 맞춘 찬양곡 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니즈와 수요에 부응하는 찬양곡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 아침부터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워낙 신실하시니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고 감동할 수 있는 곡이 무엇일까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노력하는 '모닝글로리 찬양팀'의 한 가지 부탁은 '1부 예배전 찬양팀'이 아니라 모닝글로리 찬양팀으로 불러주었으면 한다는 것. 찬양에 '예배전·후와 준비찬양'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찬양이 있을 뿐인데, 굳이 교회 예배순서에 맞춰 부서 이름을 거명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찬양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닝글로리 찬양팀' 화이팅!



〈나강열 안수집사〉

찬양집회 에세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섰던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



강효주 집사

아들이 제가 찬양팀이라서 좋답니다. 부모님도 제가 찬양팀인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찬양팀이라서 참 좋습니다. 대학생 때 읽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메세지는 오랫동안 제 신앙의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그 순간순간이 참 행복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읽고, 그 가사에 곡조를 붙여 노래를 부를 때면, 찬양이 나의 삶이 되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지난 몇 년간 찬양팀을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유년부 교사를 하며 3부 예배전 찬양팀을 섬길 때, 교회에 오면 늘 바빴습니다. 예배 끝나고 남아서 찬양팀 연습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저를 기다려야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예배전 찬양이 멈추면서 찬양에 대한 열심을 잊어가던 중, 작년 3040찬양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시간에 지각한 우리에게 남은 자리는 맨 앞 가운데였습니다. 그렇게 제일 앞에 앉게 된 저희집 아이들은 끌려 나온 망아지 같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집회에 참석하는 동안 친구들과 놀 마음으로 따라왔는데, 와보니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찬양팀인 엄마 아빠를 따라 교회에서 집회를 준비하는 어른들을 보며 자연스레 맨 앞에서 찬양에 열중하였습니다. 출발점이 달랐던 저희집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는 와중에 '뚱한' 표정으로, 두 시간 내내 찬양과 기도를 하지 않고, 저를 원망하며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난 엄마 아빠가 찬양팀이라서 정말 좋다. 나도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요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행동이 예쁜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찬양 받기 위해서'라는 말이 떠올랐다." //… 초등부 6학년 송유겸



저는 그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찬양팀 자녀들은 모두 열심히 찬양하는데, 내 아이들은 찬양하지 않고, 계속 언제 끝나냐고 물으며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저도 같이 노려보며, '이건 완전 마귀 사탄의 승리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참석하는 찬양집회라 잘 모르는 찬양도 많고, 따라 부르기에 급급하다 보니, 내 고백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받은 은사를 왜 쓰지 않고 있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지?' 등등.. 집회 내내 물음들이 제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은혜받아서가 아니라 슬퍼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길가에 돌멩이만도 못하게 서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때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반년 뒤, 이번 찬양집회에는 회중이 아닌 인도팀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왕 하는 거 남편에게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흔쾌히 함께 해주어서 고마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의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날 저희집 아이들은 맨 앞에 서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뛰고 춤추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반년 전, 저를 째려보고 언제 집에 갈 거냐고 물었던 아들과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집회 때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고 웃었어. 내가 그렇게 재밌었나?", "ㅎㅎㅎ 네가 엄청 열심히 뛰었잖아. 춤도 추고! 목소리도 제일 크게 따라 부르고! 나는 앞에서 너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 하나님이 우리 유겸이 보고 정말 기뻐하셨을걸!"

저는 작년 찬양집회의 관객, 구경꾼에서 올해는 인도팀이자 예배자로 섰습니다. 제가 달라지니 가족들도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이 예배자가 되었지요. 앞에서 찬양하는 아들과 딸을 보며, 옆에서 함께 해주는 남편을 보며, 그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찬양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 목적을 다하는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가 섰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대손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가 세워지기를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아비'가 되어 꿈꿔봅니다.

깜짝 팔순잔치



조점기 은퇴목사



살다 보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저절로 입가에 미소를 띠게 될 때가 있다. 때로는 따뜻한 인정으로 인해 가슴이 훈훈해지는 일도 있고 때로는 옛날에 어릴적 같이 뛰어놀았던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는 행복도 있다.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기쁘고, 살아 있기 때문에 햇살이 비치는 나뭇잎의 섬세한 잎맥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45년 전에 철없던 목회자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다. 처음으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경험도 했었다. 새 예배당에는 새내기 젊은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 주변에서는 처녀들 교회라고까지 소문이 났다. 그럴만한 이유로는 당시 지방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모였는데 여자 청년들이 밤새워 가제 손수건을 만들어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로 드렸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성장하여 결혼도 하고 직장도 얻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45년의 세월이 흘렀다. 모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사모님이 되셨다. 오늘 그러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만나는 날'을 정하고 그 교회 띠 동갑쟁이들인 우리가 45년 만에 감격의 상봉을 한 것이다.

부지런한 분의 지혜로 카톡방을 통해서 오랜만에 만나자는 날을 약속하고 기다고 기다리다가 천리 한양에서도 멀다 하지 않았고 광주에서, 여수에서, 그리고 순천에서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단숨에 달려들 왔다. 45년의 그리움에 서로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콩닥거리는 가슴으로 정든 고향 하늘이 가까이 있는 약속된 장소에 함께하였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 듯 다들 나는 누구라고 소개해야 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어른들로 변하였다. 45년전 그 작은 교회 새내기 청년들이었던 이들이 모두 시간을 내어 순천에서 만난 것이다. 그 동안 나는 그 작은 교회와 몇몇 교회를 이어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한지 10년이 다 되었고, 우리가 만난 지도 45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그러나 잊지 못하는 사랑으로 옛날 그 청년들이 이제 귀한 종들로 성장하여 헌신적 삶을 사는 그들의 사랑이 생각지도 못한 팔순잔치를 베풀어 색다른 의미를 더하였다.

떡상을 차리고 촛불을 켜고 팔순 축하 노래를 부르며 나는 목회 역사상 아니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 갖는 특별한 잔치를 하였다.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만남이 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고 너무 고맙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누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감동의 사랑을 받아보았을까? 추억은 사랑했던 시절의 따스한 기억과 뜨거운 그리움을, 신비한 사랑의 힘으로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했다. 비록 흰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지난 세월을 말해주고 있지만 친구들과의 만남에 그깟 외모는 중요하지 않았다.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가을 푸른 하늘에 깊게 물들였고, 가슴 속에 묻어 둔 코흘리개 시절의 추억들을 다시 꺼내 볼 수 있어 마냥 행복하였고 감사 할 뿐이었다. 다음, 또 그다음 모임이 기대되고 기다려진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모두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기를 축원한다.



봄의 향연

따스한 햇살이 담벼락을 노크하듯
새봄이 오는도다
여기저기 피어나는 꽃들과
움터 오르는
여린듯 강한 새싹들 사이로
겨우내 숨겨두었던
소중함을 따사로운 햇살로
영롱한 무지개빛을 발하는도다
저어기 피어난 벚꽃의 흐드러짐은
내마음에 설레임가득
노오란 민들레가 되고..
소망같은 만물이 소생함은
봄의 향연에 초대된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이러라



류현주 권사

성경필사 간증

"성경필사는 주님과 연결하는 동아줄"



김 건 청년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님의 추천으로 마태복음을 영어로 쓰며 성경필사를 처음 접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 사복음서와 바울서신 일부를 필사함은 어린 시절 저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본격적인 성경필사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시작했습니다. 평소 끈기가 부족하여 성경일독조차 번번이 실패했기에, 확실한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성경필사를 하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의료선교사라는 비전을 품고 의학도의 길을 선택했지만, 코로나 시절 영육이 무너진 저는 갑자기 늘어난 공부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많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살며 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거의 매주 월요일 시험을 보는 환경 속에서, 시험 전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평소처럼 성경을 썼음에도 두려움 대신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곁에서 매일 필사와 통독을 함께 하던 친구들이 제게 더욱 힘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성경필사는 저를 주님과 연결해주는 동아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저에게 성경필사는 최소한의 신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성경을 쓰며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찬양과 성서 강해를 들으며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필사는 통독과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한 번 성경 필사에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앙의 대물림 성경필사"



송희정 권사

내가 성경 필사를 시작한 건 2019년 5월, 권사 피택을 받을 즈음이다. 곧 항존직분자가 된다는 사실에 큰 도전이 찾아왔고, 일찍 사별하신 어머니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친구로 동행하면서 새벽예배, 가정예배를 거르지 않으셨기에,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성경필사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성경필사를 위해 주변을 정리했다. 휴대폰 앱을 지우고, 드라마 시청도 자제하면서 하루 두 시간 이상 매일매일 성경을 필사했다. 출근하지 않은 토요일에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구약 '예레미야'에서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성경을 손에서 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분주히 계획했던 일이 '나 보다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시 시작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2~3)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필사를 시작하자,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고민하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근심으로 흘렸던 눈물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흘러나왔다. 흐르는 눈물 뒤로 2023년 말까지 필사를 끝내기로 다짐했고, 그해 12월 26일, 약 4년 7개월만에 필사를 마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

처음의 필사는 첫째 딸 주영이를 위한 필사였다. 첫 번째 필사의 구절마다 '주영이가 이와같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을 새겼다. 똑같은 심정으로 둘째 딸 세영이를 위해 지금 필사 중이다. 나에게 주신 세 자녀를 위해 일단 세 번은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천국에 갔을 때에도 세 자녀가 엄마의 필사 노트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그리고 엄마의 기도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내 어머니가 나의 롤모델이었던 것처럼 나 또한 내 자녀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성경 필사로 만난 하나님은 소망과 위로, 감사의 하나님이셨다. 성경 필사로 만난 하나님의 은혜는 통독을 통한 은혜보다 너무나 컸다. 성경 필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루에 한 절이라도 써 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라 권하고 싶다.

먼길 떠나시는 어머님께 바칩니다.



김해근 안수집사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어느 별 어느 하늘나라에서 우리 곁에 왔을꼬. 오는 동안 고생했지, 힘들진 않았니?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주신 참 고귀한 선물! 참사랑 우리 아기! 귀엽고, 예쁘고, 천사 같은 우리 강낭이!" 이 아이가 당신 살아생전 마지막 증손녀가 되나요? 어쩜 당신도 이처럼 귀한 딸로 이 땅에 오셨을 텐데, 이렇게 62명의 대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후로도 예비가족을 준비하게 하여서 끊임없이 지속 성장 번성케 하는 모든 것이 어머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줄로 압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열일곱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부부의 연을 맺어 자갈밭 일궈가며 세월의 모진 풍파 다 겪으시고 일곱 자식 키워내신 나의 어머니! 추수 끝난 늦가을 미꾸라지 잡아 추어탕을 끓이고, 오릿길 멀다 하지 않고 갈퀴나무 풋 나무하러 지게 지고 마당재로, 텃골로 다녔던 그 시절, 젊은 날의 어머니 모습이 사뭇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하늘나라 보내시고 아버지가 못다 누린 효도 다 받으시고,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시는 나의 어머니! 어머니 고맙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젊은 시절 직장에 다닐 때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부모님 모셔놓고, 따뜻한 점심 한 그릇 대접 못한 이 부족한 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사드리고 싶어도 만 원짜리 용돈 한 장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으니 후회가 됩니다. 혹여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다 용서하시고 좋았던 기억만 간직하고 아픔도 근심도 없는 하나님 품으로 가십시오. 제 나이 예순 넘어 자식들 장가보내 손녀를 품에 안고 보니 이제서야 어머니 마음을 조금 알 듯합니다.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도, 출가해 멀리 있을 때도,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 곁에 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일곱 자식 누구도 앞서지 않고 당신 곁에 올 곧게 지키고 서 있습니다. 구순 잔치때 가졌던 자식들의 바람처럼 아쉬운 대로 백세는 누리지 못했으나 어찌하겠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것을… 저 천국에서 29년째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께 여기까지 보고 왔노라고 이곳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흔이 넘은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음이 저와 가족들에게는 어찌나 감사한지요. 섬망 중에도 아버지를 부르는 간절한 목소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어머니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 "어찌 됐든 형제간에 우애하며 살거라." 그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 내려놓고 천국의 소망을 그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어머니와 아들로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해는 저물어 날은 추워지는데 보내는 님도 서러울까 눈이 아닌 빗방울이 대지를 적십니다. 원하기는 하얀 백설이 대지를 덮을 때 그 길 발자국 남기고 떠나가십시요. 먼 훗날 그 발자국 따라 어머니 찾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어머니 사랑합니다.

넷째 올림

무등plus 편집위원

지 도 목 사 : 최충희
편집위원장 : 지형원
편 집 위 원 : 이종남 정기문 김명순 김정헌 나강열 박민지 박은혜 박창민 이경수 조만현 조유진 채석원 최 현 현지훈

기실련 Christian Ethics Movement
좋은교회
- 2014 땅 끝까지 전도하는 교회 -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무등교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